
2016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6. 12.

목 차

I .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II .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6
1. 종합청렴도	6
2. 계약분야 청렴도	8
3.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13
4.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19
5.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20
III. 향후 추진계획	20
《붙임1》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 현황	21
《붙임2》 국공립대학 유형별 청렴도 등급표	22

I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배경

- 대학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각 대학의 취약분야 파악 및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내부 활동(강의·연구 등)의 비중이 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12년 특화모형 개발 및 매년 측정
- ※ 2011년까지 '한국과학기술원'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포함시켜 측정
2013년의 경우, '교육대학교 및 2년제 전문대학·기능대학(21개)' 측정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3. 측정 대상 기관 : 총 36개 국·공립대학 및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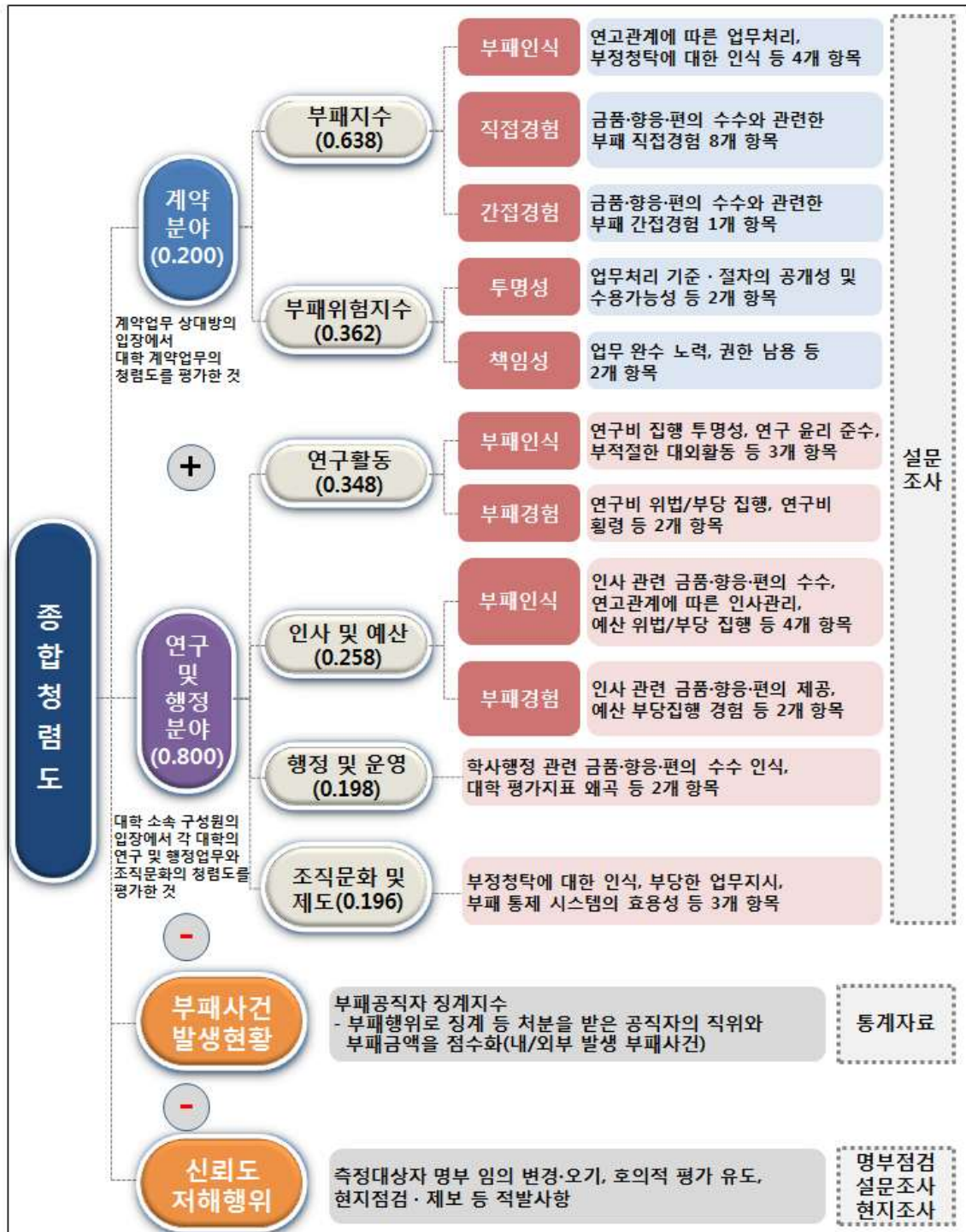
< 2016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

유 형	학 교 명
법인(6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교(29개)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공립대학교(1개)	서울시립대학교

4. 측정 모형

- 설문조사결과(계약분야 청렴도,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청렴도를 산출

〈 2016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



5.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총 12,183명)

- 계약분야 청렴도 : 3,600명

※ '15. 7. 1. ~ '16. 6. 30. 사이에 계약업무(구매, 용역, 공사)와 관련하여 각 대학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계약 상대방 및 입찰참가자 등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 8,583명

※ '16. 6. 30. 현재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시간강사, 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생 등 소속 구성원

○ 설문조사 개요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조사 병행

- 조사기간 : '16. 9. 19. ~ '16. 11. 11.

-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에서 ± 0.03 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정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 호의적 평가유도 여부에 대한 설문 응답결과, 명부 및 표본 오염행위 등의 적발 사항을 점수화

6. 주요 개선 내용

□ 청렴도 측정모형의 타당도 제고

- 금년 시행된 청탁금지법 취지를 반영하여 계약분야 청렴도,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에 부정청탁 관련 설문 추가
 - (기존) 기관의 청탁현황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 현황을 참고문항으로 시험측정
 - (변경) '사익추구 경향' 항목을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 항목으로 변경

□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확대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사건 반영범위 확대
 - (기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행위 등을 위주로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화
 - (변경)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부패사건 점수화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 설문조사의 신뢰도 제고

- 외부청렴도 설문항목 간소화로 조사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설문조사에 대한 부담 경감
 - (기존) 금품·향응·편의제공 여부에 대해 유형별로 각각 부패경험 빈도, 금액 질문
 - (변경) 부패경험 빈도 및 금액을 총액으로 질문하여 최대 32문항인 외부청렴도 설문문항을 24문항으로 간소화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림도 기관별 표본수를 대학정원에 따라 확대
 - (기존) 대학별 200표본으로 할당
 - (변경) 대학별 정원을 기준으로 정원 1,000명 미만은 200표본, 정원 1,000명 이상은 300표본으로 확대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배경

- ▶ (목 적) 대학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각 대학의 취약분야 파악 및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 ▶ (연 혁) 국·공립대학 단위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12년 이후 매년 실시

□ 청렴도 측정 모형

- ▶ 강의 및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과 구별되는 특화 모형을 적용
- ▶ 측정분야는 계약분야 청렴도와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로 구별
- ▶ 설문조사는 대학과 계약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계약 상대방, 각 대학의 소속구성원(교직원·시간강사·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
- ▶ 설문 결과에 감점(부패사건 및 신뢰도저해행위)을 반영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 ▶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92점***으로, '15년 대비 0.04점 상승

① 계약분야 청렴도 : **7.58점**으로 '15년 대비 0.10점 상승

- 부패위험지수(책임성, 투명성)는 **6.83점**으로 15년 대비 소폭(0.57점) 상승
- 부패지수(인식, 경험률) 중 부패 작 간접경험률은 **1.0%**로 '15년(0.8%) 대비 0.2%상승

②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 **5.58점**으로 '15년 대비 0.04점 상승

- 연구활동 부패경험률(연구비 위법·부당집행 / 횡령)은 각 **11.0%, 9.5%**로 '15년 대비 **1.0%하락**
- 인사 부패 경험률(금품,향응,편의제공)은 **2.4%**로 '15년 대비 **0.4%하락**
- 예산 부패경험률(예산 위법·부당 집행)은 **7.3%**로 '15년 대비 **0.2%하락**

-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적용기관 및 사건 수는 '15년 대비 증가

- 20개 대학에서 발생한 총 **67개 사건** 반영('15년 17개 대학, 38건)

- ▶ 주요 국·공립대학 청렴도 점수

- 상위 3개 대학 : 서울시립대학교(6.54점), 한국해양대학교(6.33점), 강릉원주대학교(6.30점)

II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1. 종합 청렴도

- 전체 3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92점으로, '15년(5.88점) 대비 평균 0.04점 상승

※ '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종합청렴도 7.85점(전년 대비 0.04점 하락)

- 계약분야 청렴도(7.48→7.58점),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5.54→5.58점) 모두 '15년 대비 상승
- 계약분야 청렴도에 비해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가 낮은 수준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 >



2. 계약분야 청렴도

- 계약분야 청렴도는 **부패지수**(부패인식, 부패직접경험, 부패간접경험)와 **부패위험지수**(투명성, 책임성)로 구성(총 17개 항목)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계약분야 청렴도 모형 〉



〈 계약분야 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15년 대비
계약분야 청렴도 점수			7.58	+0.10
부패지수 (0.638)	부패인식 (0.351)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0.248)	7.00	+0.18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244)	6.70	+0.39
		부당한 영향력 행사(0.271)	7.10	+0.19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0.237)	7.20	-
	부패직접경험 (0.511)	금품제공빈도(0.198)	8.68	-0.75
		금품제공규모(0.188)	9.00	-0.56
		금품제공률(0.085)	8.51	-0.66
		향응제공빈도(0.154)	8.67	-0.60
		향응제공규모(0.144)	8.79	-0.53
		향응제공률(0.069)	8.36	-0.21
		편의제공빈도(0.103)	9.72	+0.77
		편의제공률(0.059)	9.72	+0.83
	부패간접경험(0.138)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1.000)	7.44	-0.48
부패위험 지수 (0.362)	투명성 (0.552)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0.555)	6.89	+0.65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0.445)	6.56	+0.40
	책임성 (0.448)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0.502)	6.80	+0.59
		권한남용(0.498)	7.06	+0.61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지난 1년간 국·공립대학과 계약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분야 청렴도는 7.58점으로 '15년(7.48점) 대비 0.10점 상승

※ '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 '계약 및 관리' 업무 점수(8.60점)에 비해 1.02점 낮은 수준

- 부패행위 관련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측정한 '부패지수'(8.02점)에 비해,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측정한 '부패위험지수'(6.83점)가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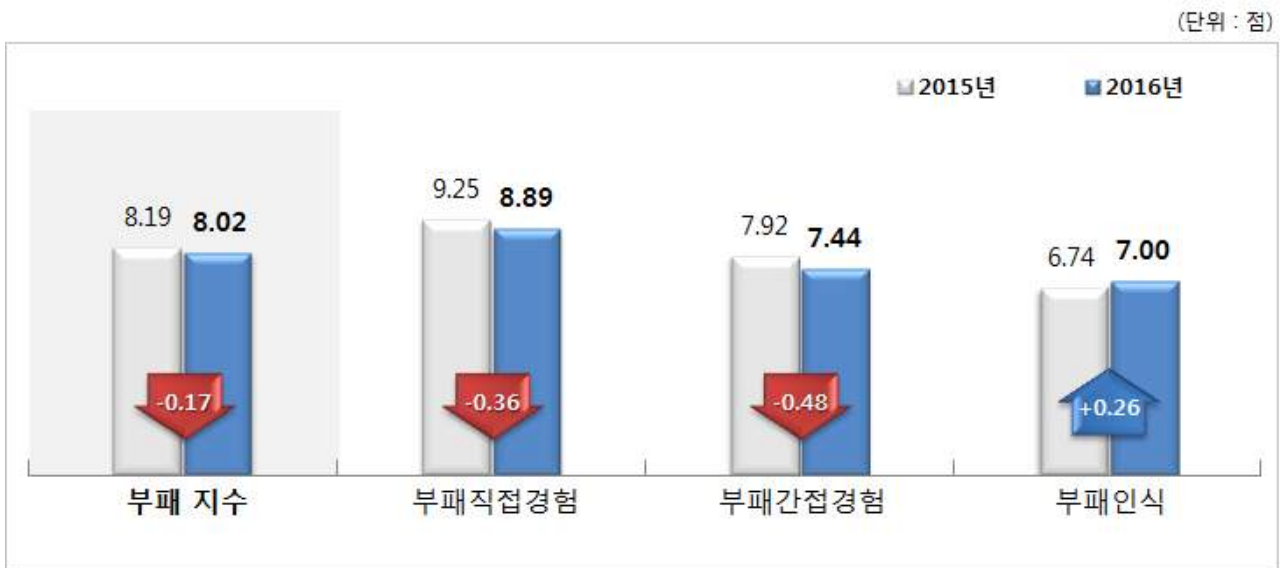
< 계약분야 영역별 청렴도 >



② 부패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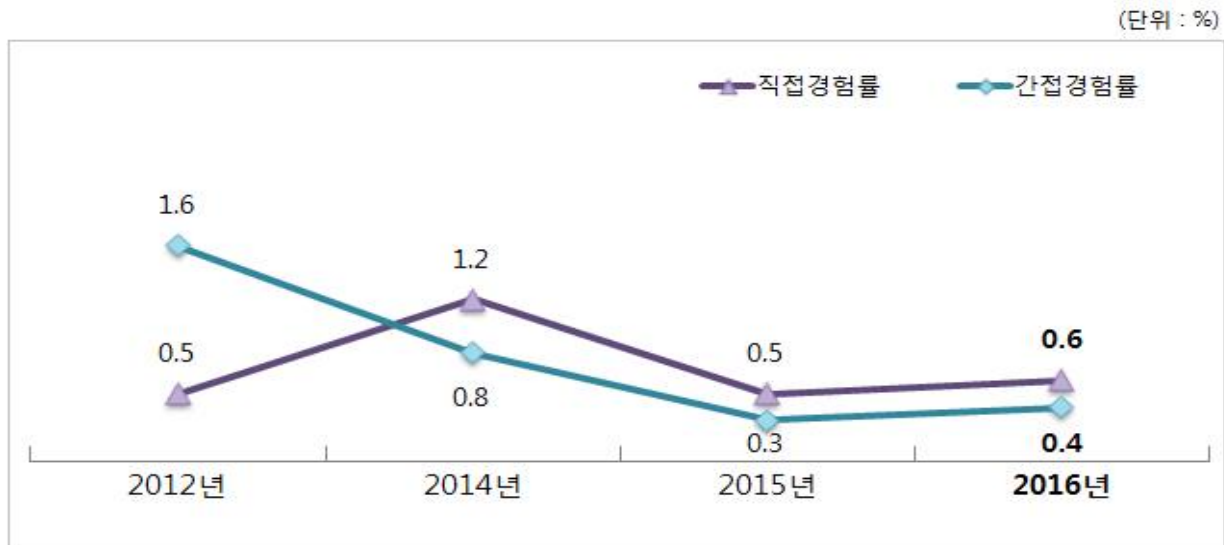
- 부패지수는 8.02점으로 '15년(8.19점) 대비 0.17점 하락
- 전년 대비 '부패인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 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부패직접경험'점수는 8.89점으로 '15년(9.25점)대비 0.36점 하락하였으며, '부패간접경험' 점수는 7.44점으로 '15년(7.92점) 대비 0.48점 하락

〈 '부패지수' 하위 영역별 점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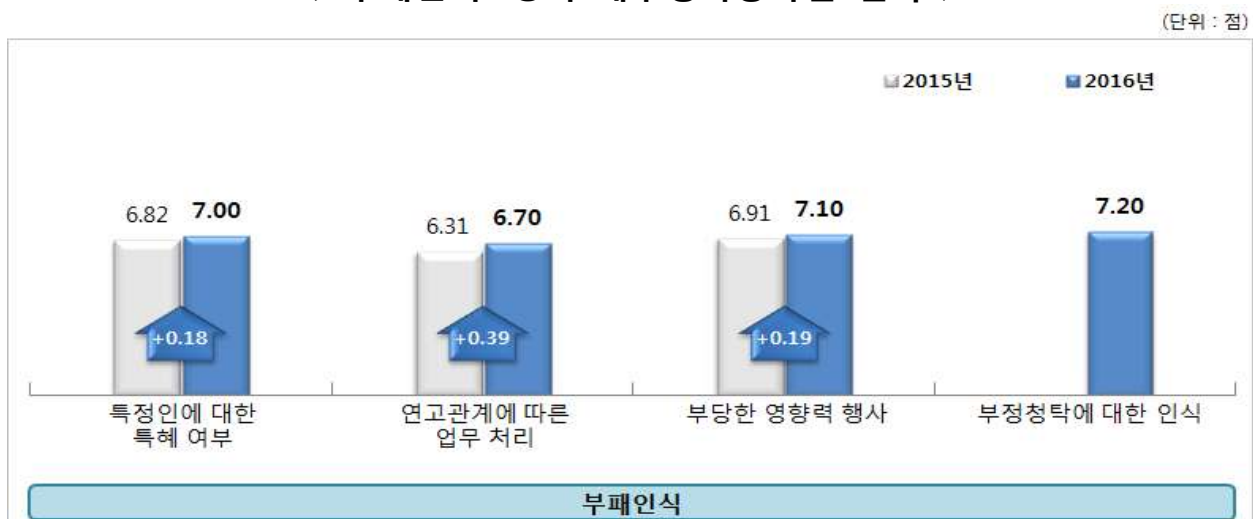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국·공립대학과 계약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평균 0.6%로 '15년(0.5%) 대비 소폭 증가

〈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추이 〉



- 평균 제공규모는 금품제공 응답자의 경우 약 21.1만원, 향응제공 응답자의 경우 약 25.4만원 수준이며,
 - 평균 제공빈도는 금품제공 응답자의 경우 약 1.4회, 향응제공 응답자의 경우 약 2.3회, 편의제공 응답자의 경우 약 1.0회
- 부패경험 응답자 중 금품·향응·편의 제공시기는 ‘명절, 연말 연시나 기관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 제공이유는 ‘관행상/인사차/친분 유지를 위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음¹⁾
 - ※ 제공시기 : ‘명절 연말연시나 기관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33.3%), ‘업무처리 후(26.7%) 순
 - ※ 제공동기 : ‘관행상/인사차/친분유지를 위해(46.7%),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26.7%) 순
- 지난 1년간 국·공립대학과 계약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률²⁾은 0.4%로, 15년(0.3%) 대비 소폭 상승
- 부패인식 영역 중 3개 세부항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특히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가 0.39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 항목이 7.20점으로 4개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수준

〈 ‘부패인식’ 영역 세부평가항목별 결과 〉



※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 항목은 2016년 신규 항목임

- 1) 제공시기와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 2) 간접경험은 응답자 본인이 아닌 친지,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부패경험에 대한 응답임

③ 부패위험지수 분석

□ 부패위험지수

- 부패위험지수는 6.83점으로 '15년(6.26점) 대비 0.57점 상승
 < '부패위험지수' 하위 영역별 점수 비교 >



-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등에 대한 '투명성' 점수와 업무 완수 노력 등에 대한 '책임성' 모두 전년 대비 개선
 - 투명성 영역에서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6.56점)이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6.89점) 대비 낮음
 - 책임성 영역에서는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6.80점)이 '권한남용'(7.06점) 대비 낮은 수준

< 세부평가항목별 결과 >



3.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연구활동, 인사 및 예산, 행정 및 운영, 조직문화 및 제도로 구성(총 16개 항목)된 설문조사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모형 >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15년 대비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점수			5.58	+0.04
연구 활동 (0.348)	부패인식 (0.516)	연구비 집행 투명성(0.421)	5.70	+0.11
		연구윤리 준수 여부(0.340)	5.78	+0.28
		부적절한 대외활동(0.239)	5.60	+0.29
	부패경험 (0.484)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0.575)	4.55	-0.79
		연구비 횡령(0.425)	5.52	-0.30
인사 및 예산 (0.258)	부패인식 (0.557)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0.309)	6.31	+0.19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영향(0.199)	5.74	+0.09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관리(0.311)	5.36	+0.31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0.181)	5.90	+0.12
	부패경험 (0.443)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빈도(0.490)	5.34	-0.44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빈도(0.510)	4.44	-0.65
행정 및 운영(0.198)		대학 평가 지표 왜곡(0.503)	6.19	+0.26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0.497)	6.41	+0.19
조직문화 및 제도(0.196)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0.329)	5.88	-
		부당한 업무지시(0.345)	6.21	+0.54
		부패 통제 시스템의 효용성(0.326)	5.31	+0.31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5.58점으로 '15년(5.54점) 대비 0.04점 상승
- 전년 대비 '행정 및 운영' 및 '조직문화 및 제도' 영역이 상승한 반면, '연구활동' 및 '인사 및 예산' 영역은 하락
- 4개 영역 중 '행정 및 운영'이 6.3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연구활동'은 5.35점으로 가장 낮음

< 연구 및 행정분야 영역별 청렴도 >



② '연구활동' 영역 분석

- 연구활동 영역 점수는 5.35점으로 '15년(5.52점) 대비 0.17점 하락
- 부패인식 점수는 5.70점으로 '15년(5.49점) 대비 0.21점 상승한 반면, 부패경험 점수는 4.96점으로 '15년(5.54점) 대비 0.58점 하락

〈 '연구활동' 하위 영역별 점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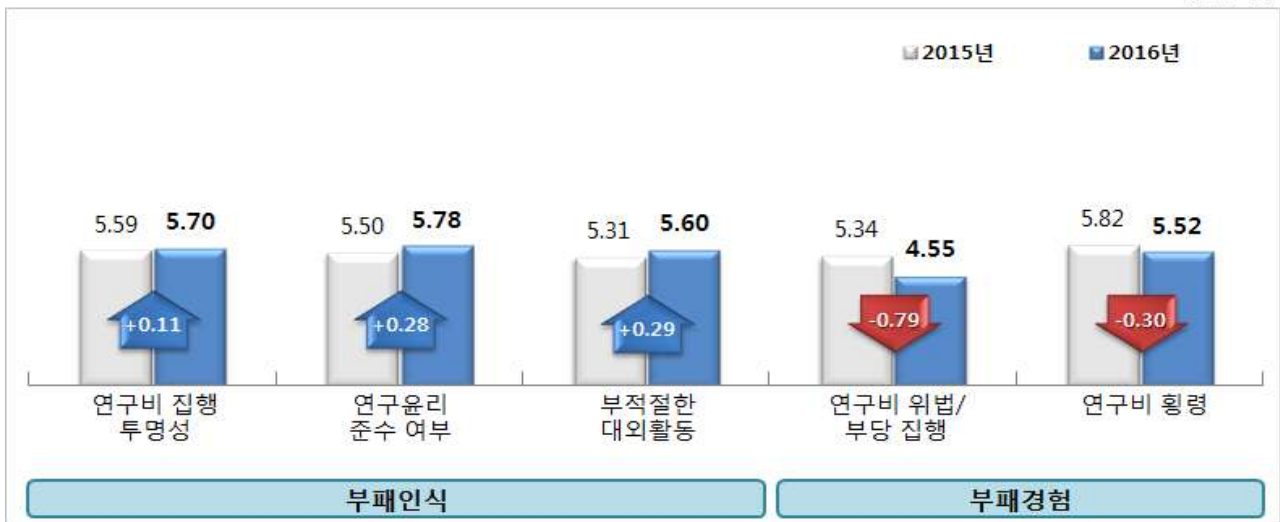
(단위 : 점)



- 부패인식 영역은 3개 세부항목 모두 상승한 반면, 부패경험 영역은 2개 세부항목 모두 하락

〈 세부평가항목별 결과 〉

(단위 : 점)



- 지난 1년간 연구비 관련 부패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
 -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직·간접 경험률은 11.0%로 '15년(12.0%) 대비 1.0%p 하락
 - 연구비 횡령 직·간접 경험률은 9.5%로 '15년(10.5%) 대비 1.0%p 하락

③ '인사 및 예산' 영역 분석

- 인사 및 예산 점수는 5.41점으로 '15년(5.55점) 대비 0.14점 하락
- 부패인식은 5.83점으로 '15년(5.63점) 대비 상승한 반면, 부패경험은 4.88점으로 '15년(5.43점) 대비 하락

< '인사 및 예산' 하위 영역별 점수 비교 >



- 부패인식 영역은 4개 세부항목 모두 상승했으며,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이 6.31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
- 부패경험 영역은 2개 세부항목 모두 하락했으며,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빈도'가 4.44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

< 세부평가항목별 결과 >



- 지난 1년간 인사 및 예산 영역의 부패 경험률은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전체 표본 수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 직·간접 경험률은 2.4%로 '15년(2.8%) 대비 0.4%p 하락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직·간접 경험률은 7.3%로 '15년(7.5%) 대비 0.2%p 하락

④ '행정 및 운영' 영역 분석

- 행정 및 운영 점수는 6.30점으로 '15년(6.07점) 대비 0.23점 상승
- 세부평가항목 '대학 평가 지표 왜곡'(6.19점) 및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6.41점) 모두 '15년 대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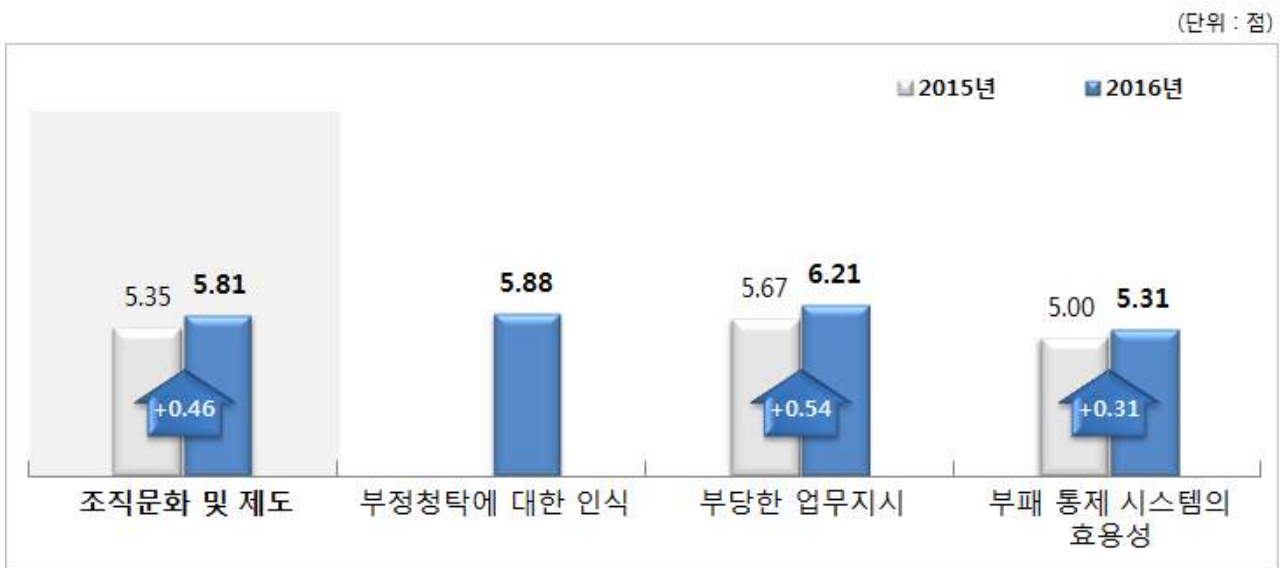
< '행정 및 운영' 세부평가항목별 결과 >



⑤ '조직문화 및 제도' 영역 분석

- 조직문화 및 제도는 5.81점으로 '15년(5.35점) 대비 0.46점 상승
- 세부평가항목 '부당한 업무지시'는 6.21점으로 '15년(5.67점) 대비 0.54점 상승, '부패 통제 시스템의 효용성'은 5.31점으로 '15년(5.00점) 대비 0.31점 상승

< '조직문화 및 제도' 세부평가항목별 결과 >



※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 항목은 2016년 신규 항목임

4.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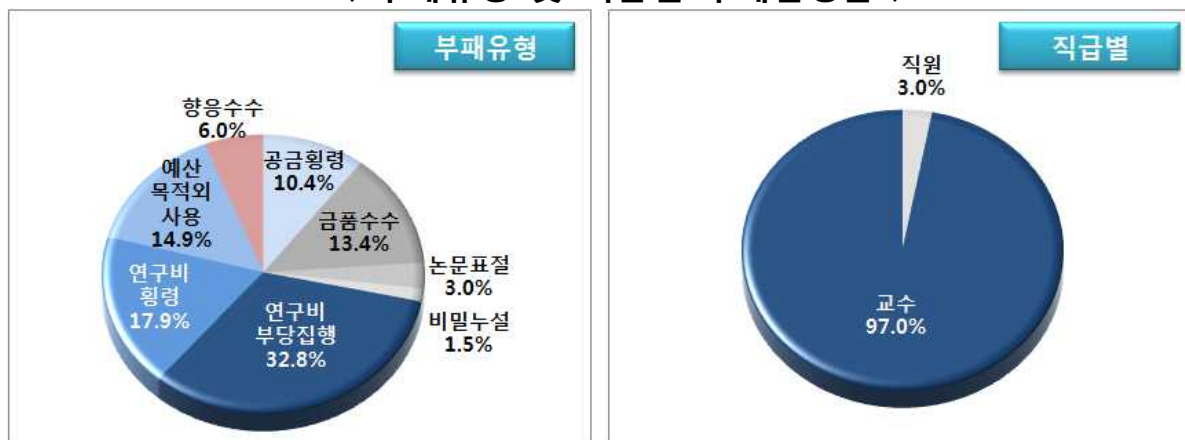
- 각 대학에서 발생한 교·직원의 부패사건은 지난 1년간의 징계 등 처분통계를 바탕으로 점수화하여 분야별 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 기관별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정원 등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감점규모 산정
- 감점 적용 대상기관 및 부패사건 수는 20개 대학(55.6%), 67건으로 '15년 17개 대학(47.2%) 대비, 38건 증가
 -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당 평균 사건 수는 3.4건, 평균 감점은 0.14점으로 '15년(2.2건, 0.14점) 대비 평균 사건 수 증가

< 부패사건 감점 현황 >

감점 기관수	총 건수	총 금액	감점 기관당 평균금액	감점 건당 평균금액	감점 기관당 평균감점
20개	67건	13억 5,525만원	6,776만원	2,023만원	0.14점

-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32.8%로 가장 높고, 직급별로는 '교수'가 97.0%로 '직원'(3.0%) 대비 높게 나타남

< 부패유형 및 직급별 부패발생률 >



5.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

- ☐ 측정대상자 명부의 중복·오기로 인한 감점은 총 3개 대학(전체의 8.3%)에 적용되었으며, 건수에 따라 평균 0.01점 감점(최대 0.02점)
- ☐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 설문결과 감점기관은 총 19개 대학(52.8%)
 -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가 있었다는 응답은 감점된 기관 당 평균 2.0건 나타났으며, 감점 규모는 평균 0.06점(최대 0.12점)

Ⅲ 향후 추진계획

- ☐ 국·공립대학교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16. 12. 20. (화)
 - 측정기관별 종합청렴도, 계약분야 청렴도,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점수 및 등급 발표
- ☐ 측정결과의 환류 제고
 -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국공립대학 청렴도 모형 관련 의견 수렴
 - '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4~5등급 대학에 대해 '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각급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실적을 점검하여 법률적 의무사항(권익위법 제27조의3)의 이행력 확보

붙임 1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 현황(36개)

설 립	유 형	학 교 명	
법인(6개)	대학교(6개)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학교 (29개)	각종학교(2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교(27개)	강릉원주대학교	순천대학교
		강원대학교	안동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군산대학교	충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충북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경대학교	-
공립대학교(1개)	대학교(1개)	서울시립대학교	-

붙임 2

국공립대학 유형별 청렴도 등급표(36개)

(‘16년도 점수, ‘15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	계약분야 청렴도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평균 5.92, 표준편차 0.32	평균 7.58, 표준편차 0.25	평균 5.58, 표준편차 0.37
1 등급	서울시립대학교(6.54, 0.46) (6.40점 이상)		서울시립대학교(6.27, 0.48) 공주대학교(6.15, 0.76) (6.14점 이상)
2 등급	한국해양대학교(6.33, 0.14) 강릉원주대학교(6.30, 0.04) 공주대학교(6.27, 0.54) 한국전통문화대학교(6.27, 0.01) 금오공과대학교(6.25, 0.00) 순천대학교(6.24, 0.24) 제주대학교(6.24, 0.46) 한국체육대학교(6.24, 0.90) 경남과학기술대학교(6.23, 0.06) 서울과학기술대학교(6.22, -0.05) 군산대학교(6.19, -0.03) 안동대학교(6.15, 0.08) 충북대학교(6.11, -0.13) (6.08점~6.40점 미만)	광주과학기술원(7.93, 0.31) 한국과학기술원(7.89, 0.26) 제주대학교(7.84, 0.20) 한국예술종합학교(7.81, 1.66) 한국체육대학교(7.79, 0.31) 서울시립대학교(7.78, 0.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7.77, 0.37) 금오공과대학교(7.74, 0.11) 목포해양대학교(7.73, 0.09) 한국해양대학교(7.72, 0.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7.71, 0.03) (7.71점~7.96점 미만)	군산대학교(6.00, 0.01) 서울과학기술대학교(6.00, 0.04) 강릉원주대학교(5.99, 0.06) 한국해양대학교(5.98, 0.05) 금오공과대학교(5.95, 0.00) 순천대학교(5.90, 0.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5.89, -0.11) 제주대학교(5.88, 0.39) 경남과학기술대학교(5.87, -0.04) 안동대학교(5.85, 0.02) 한국체육대학교(5.85, 0.99) (5.77점~6.14점 미만)
3 등급	한국예술종합학교(6.07, 0.07) 한국교통대학교(6.06, -0.12) 강원대학교(6.00, 0.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6.00, -0.12) 인천대학교(5.85, -0.33) 울산과학기술원(5.79, -0.19) 목포해양대학교(5.77, -0.27) (5.76점~6.08점 미만)	부산대학교(7.70, 0.30) 충북대학교(7.69, 0.03) 경남과학기술대학교(7.68, 0.45) 순천대학교(7.67, -0.02) 인천대학교(7.67, 0.03) 전북대학교(7.67, -0.08) 강릉원주대학교(7.64, -0.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7.64, 0.23) 서울대학교(7.63, 0.20) 부경대학교(7.62, 0.03) 창원대학교(7.59, 0.11) 한국교원대학교(7.59, -0.11) 울산과학기술원(7.57, -0.01) 한경대학교(7.57, -0.03) 경상대학교(7.56, -0.08) 한밭대학교(7.55, -0.13) 안동대학교(7.52, 0.34) 한국교통대학교(7.48, -0.16) (7.45점~7.71점 미만)	충북대학교(5.74, -0.18) 한국예술종합학교(5.74, -0.25) 한국교통대학교(5.70, -0.11) 강원대학교(5.69, 0.06) 대구경북과학기술원(5.67, -0.17) 목포해양대학교(5.55, -0.16) 울산과학기술원(5.48, -0.14) 인천대학교(5.47, -0.35) 목포대학교(5.44, 0.22) 전남대학교(5.40, -0.01) (5.39점~5.77점 미만)
4 등급	한국교원대학교(5.74, -0.13) 창원대학교(5.72, 0.05) 목포대학교(5.70, 0.01) 전남대학교(5.70, -0.03) 광주과학기술원(5.69, -0.52) 한경대학교(5.69, -0.11) 부산대학교(5.68, 0.11) 부경대학교(5.66, 0.15) 경상대학교(5.63, -0.23) 한밭대학교(5.60, -0.27) 충남대학교(5.58, -0.06) 전북대학교(5.54, 0.46) 서울대학교(5.45, 0.01) (5.44점~5.76점 미만)	경북대학교(7.33, 0.07) 강원대학교(7.28, 0.50) 군산대학교(7.26, -0.17) (7.20점~7.45점 미만)	한국교원대학교(5.38, -0.08) 창원대학교(5.36, 0.01) 한경대학교(5.32, -0.03) 부경대학교(5.30, 0.13) 경상대학교(5.26, -0.23) 광주과학기술원(5.24, -0.62) 충남대학교(5.24, 0.03) 한밭대학교(5.23, -0.21) 부산대학교(5.21, -0.01) 전북대학교(5.14, 0.63) (5.02점~5.39점 미만)
5 등급	경북대학교(5.38, 0.02) 한국과학기술원(5.31, 0.00) (5.44점 미만)	전남대학교(7.09, -0.34) 충남대학교(7.08, -0.42) 목포대학교(6.97, -0.70) 공주대학교(6.96, -0.47) (7.20점 미만)	서울대학교(4.98, -0.03) 경북대학교(4.94, -0.15) 한국과학기술원(4.81, 0.03) (5.02점 미만)